



# ‘대지의 배꼽’ 티베트

티베트인은 자신들의 땅을 ‘대지의 배꼽’이라 부른다. 지구가 아기라면, 티베트는 그 아기와 어머니인 우주를 연결하는 탯줄이 되는 셈이다. 태초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배꼽. 티베트인들은 그 어머니의 어머니를 만나는 천년의 여정을 불교와 함께 해왔다.

티베트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춥고 거칠어 살기 힘든 땅, 3백년 넘게 중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머리를 스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견 티베트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다. 티베트는 1천년의 역사를 지녔고, 아시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제국이었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로 불교를 품었다. 자부심도 대단했다. 그리고 겸손했다. 그 ‘대지의 배꼽’에 서서 인도불교, 이슬람문화, 중국 문명을 수용했기에 그렇다.

티베트화의 세계적 권위자 톨프 A. 슈타인은 <티베트의 문화>에서 티베트에 대한 오해들을 하나하나 풀어헤쳤다. 고대 신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 종교, 관습, 문학, 예술 등 티베트 전반에 걸쳐 시공을 넘나들며, 오해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틱한 역사, 어떻게 높은 문화적 품격을 갖추게 됐는지, 심원한 종교적 이상의 나라였고, 지금도 그런 나라임을 구축구축에서 품품히 일러준다.

우선 저자는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이 나라가 일반적인 인류의 역사를 위해 기여한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책을 쓴 의도를 소개한다. 토지와 주민, 역사, 사회, 종교와 관습 등 4개의 장으로 나눠 티베트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짚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티베트의 문화 톨프 A. 슈타인 지음 안성두 옮김 무우수 | 1만5천원

저자의 펜 끝은 철저히 티베트 고유의 문화 찾기에 맞춰졌다. 인도불교의 부산물 내지 아류로서의 티베트 문화임이 문제를 지적한다. 티베트 문화의 특징은 ‘응축 내지 집중’에 있다고 강조한다. 15세기 전통종교 빈 교와 오랜 갈등을 풀고, ‘법왕(法王)제도’를 확립한 것, ‘라마교’라는 티베트만의 불교를 발전시킨 것 등을 통해 티베트 문화의 특징을 설명한다.

오해 풀기 작업은 티베트인이 오로지 목축에만 종사하고 있는 유목민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티베트 경제는 동아시아의 초기문명에 의해 발전된 곡물 농업과 축산으로부터 파생돼 나왔다. 티베트인은 단지 고산지 환경의 관점이 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을 때부터라고 지적한다.

티베트 고유문화 찾기 여정은 기존의 잘못된 인식 바꾸기로 이어진다. ‘티베트는 인육을 먹는 자들의 땅, 몽매하고 야만적인 곳’이라 묘사된 한역 경전의 비판이 이를 대변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최초의 티베트인은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농경에 적합한 산림으로 덮인 산악지대에 정착했다고 설명한다. 처음 경작지는 티베트 남동부 지역 아롱제국의 소망에 있었고, 가장 비옥한 지방인 아롱은 왕가의 발상지였다. 티베트 왕조의 원승이와 바위의 여자정령이 티베트 최초의 조상이었다는 그들의 전설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저자의 티베트 문화 읽기는 티베트가 엄연한 독립 국가였다는 점을 중국과의 역사적 사실 관계 속에서 추적한다. 10세기 말 일종의 교단국가로 발전했던 티베트 사회

의 특징과 함께 18세기에 실질적으로 중국의 속국으로 될 때까지 역사를 파헤친다. 또 근대에 들어 티베트인들이 중국과 영국의 조약으로 두 동강난 조국을 경험했고, 급기야 중국에 강제 편입된 이쯤까지도 저자의 문화읽기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키워드가 불교로 확장된다. 불교 관념이 티베트 역사를 훑는데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에 저자는 중점을 둔다.

불교가 도입되면서 티베트는 문명화의 옷을 입게 된다. 정방형 중심의 도시를 건설하고, 문자도 만들었다. 불교는 티베트의 뼈와 살이 돼온 것을 강조한다. 이후 불교는 영토가 남으로는 히말라야를 넘어 네팔까지, 서북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동북으로는 장안 근처까지 뻗어서 당시 세계 최대 제국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의 국가로서 당당하게 군림하게 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저자는 이어 티베트인의 문화적 자신감을 부각시킨다. 서기 792~794년 삼에서서 벌인 중국과 교리적 논쟁에서 승리한 것을 티베트가 완전한 독립 국가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논쟁에서 중국측 마하연은 ‘돈오’와 단선적인 사고로 선업을 적용하려는 무의미성을 주장했지만, 선업은 성불을 위한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수’의 논리에 무릎 꿇어야 했다.

때문에 이 책은 그간 국내에서 간간히 소개된 티베트 여행 기록과 그곳에서의 수행 체험을 담은 명상서 등과 처음부터 성격을 달리한다. 저자의 학문적 역량, 탄탄한 연구 등이 바탕이 돼 티베트의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기에 그렇다. 여기에 60여 장의 흑백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티베트의 아름다운 풍광과 문화를 고스란히 전해준다.

책을 넘기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티베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민을 물어내게 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유럽과 동아시아의 거대문명을 구현했던 티베트인들의 얼굴에는 문화적 자신감이 나타나 있다.



말해요, 찬드라 글 이란주 | 삶이 보이는 창 | 9천원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고, 나아가 정보화가 사회 곳곳에서 그 위력을 떨치는 상황은 우리에게 가히 혁명적인 변화에 허덕이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들은 하루하루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돈이 되거나, 자신의 지위가 올라가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면서, 그 변화의 흐름에 도태되거나 아니면 돈이 되지 않는 변화에는 무관심하다. 우리 주위에 있는 소수자들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 역시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편견과 불이해로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을 보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몇몇 사람들과 단체들이 이방인에게 작은 위도가 되고 있다.

<말해요, 찬드라>를 쓴 이란주 씨는 1995년부터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활동가로 일해오고 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상담하고, 같이 지내면서 쓴 이 책에서 그는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삶을 맑은

## 외국인노동자를 보는 맑은 시선

이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의 삶 조명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려 한다. 그리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대한민국의 편견, 부정의, 무책임 등에 따끔한 비판과 반성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서글픈 이름 ‘찬드라’를 다시 기억하게 된다. 찬드라는 네팔 여성으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행방불명되 치러져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선미아’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채 정신병원에 6년 4개월이나 갇혀야 했다. 찬드라의 잃어버린 이름과 시간은 우리들의 무관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찬드라의 곁에서 지켜본 이란주 씨는 조용히 얘기하고 있다.

‘찬드라’처럼 어처구니없는 현실 뿐 아니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삶을 엿볼 수 있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사망 등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이 일하면서 겪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결혼 가정, 무료진료소 풍경,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뒷이야기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외국인이주노동자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얘기가 아닌 남의 모습을 글로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칫 자신의 감정에 매몰되거나,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흥분도, 암울하지도 않은 다정한 시선과 문체로 주위를 둘러보고 있다. 그만큼 이 씨는 이주노동자와 가까이 있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이다.

<말해요, 찬드라>는 한국에서 잃어버린 이주노동자의 소리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내주기를 바라는 간절하면서도 소박한 바람을 모았다. 제3자가 아닌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이 씨는 지금 세상에 아시아의 인권과 문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의 바람처럼 온 세상에서 자신의 할 말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정진우 (역은손길 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 소장)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에게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 과 만나십시오

- 1. 신비의 호품요법 소와미리 지음 김연 옮김 신국판 / 240쪽 / 10,000원 권출판사
- 2. 한국의 마애불 이태오, 이경희 글, 서진 유남애 외 신국 양장판 / 496쪽 / 45,000원 다원사상
- 3. 앙양구리 부처님 불명지(불명지) 지음 신국판 / 338쪽 / 9,500원 도미안사
- 4. 365일 부처님 말씀 윤창원 엮음 4x6판 / 287쪽 / 7,500원 동중당
- 5. 금강경 강의 남익근 지음, 신원봉 옮김 신국판 양장 / 604쪽 / 20,000원 문예출판사
- 6. 김교수가 들려주는 불교이야기 김용덕 엮음 / 전 2권 각권 8,000원 도서출판 무릎이
- 7. 바른보인 집단고기1,2,3 문재연 엮음 / 신국판 각 1권 2,000원 2권 15,000원, 3권 15,000원 바른보인
- 8. 그곳에 스님이 있었네 임요림 지음 신국판 / 296쪽 / 10,000원 비보새
- 9. 도해 상상록 오고신 이종익, 심재열 편역 신국양장판 / 541쪽 / 15,000원 보리각
- 10.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예봉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 1067쪽 / 30,000원 부다리아
- 11. 법와장론 · 下 무비 옮김, 박상근 해설 / 신국판 상 282쪽 / 9,320원 / 2권 8,000원 불광출판부
- 12. 국내 최초 스님들의 현대기 담대상 안국 연대 고승 대진집 삼라정르레스
- 13. 위배불나 수행의 길 거애 스님 엮음 신국판 / 343쪽 / 12,000원 샘이김스님
- 14. 홀로 사는 즐거움 범정 지음 양장판 / 9,800원 샘터
- 15. 마음의 눈 문순정 지음 신국판 / 296쪽 / 10,000원 솔과약
- 16. 신 너는 누구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신국판 / 288쪽 / 9,900원 여시아문
- 17. 선사들의 삶과 깨달음 방정일 글, 김창열 그림 신국판 양장 / 257쪽 / 10,000원 도서출판 솔바람
- 18. 가장 행복한 공부 정와 스님 엮음 신국판 / 풀러도판 202 / 269원 / 9,000원 시공사
- 19. 부처를 만나다 부처를 죽여라 도법 지음 신국판 / 382쪽 / 11,000원 이빨대인연
- 20. 노스님의 죽음 지복스님 신국판 / 336쪽 / 10,000원 우리출판사
- 21. 고려불화 실크로드를 품다 김명재 지음 신국판 양장 / 384쪽 / 20,000원 운주사
- 22. 수도자에게 주는 글 애탈의 길 성철스님 지음 신국판 / 248쪽 / 8,500원 도서출판 장영각
- 23. 선사들이 띄우는 깨달음의 편지 정년 엮음 신국판 / 292쪽 / 10,000원 장수
- 24. 연명인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슈리 탐바다 지음, 홍영숙 옮김 신국판 / 240쪽 / 8,900원 지혜의 나무
- 25. <21세기 자연관상사리주> 지압 풀 탐바다 지 / 909원 46배반 변형 / 192쪽 / 21,500원 이빨대인연
- 26. 명상수행의 바다 천재상 엮 신국판 / 635쪽 / 23,000원 한국배달의상인협회
- 27. 영복하게 사느라 이빨대 죽는 법 장재 지음 신국판 / 240쪽 / 28,000원 영복인세상
- 28. 애 정담 김명식 지음 / 신국판 352쪽 / 12,000원 화남
- 29. 살아있는 한자 교과서 1, 2 정년 엮음 신국판 / 420쪽 / 15,000원 휴머니스트
- 30. 천문학과 불어낸 금강경의 비밀 이시우 지음 / 신국판 348쪽 / 13,000원 도미안사
- 31. 바깥과 함께 한 나날 대바리자 무달라이아르 기르, 대성 옮김 신국판 / 384쪽 / 13,000원 탐구사
- 32. 선어삼백적(禪語三百則) 자차석 엮음 신국판 / 420쪽 / 10,000원 여시아문

★ 본 연합광고 서적은 책방 여시아문에서 11월 30일 까지 특설코너를 마련하여 판매 할 예정입니다 ★